

당대를 다시 보고, 역사의 속내 들춘 책에 시선

‘조선의 역관, 자본주의, 세기말 비엔나의 풍광,
그리고 작가가 히말라야에 간 까닭...’

3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각 언론은 ‘우리 것’을 새롭게 해부하고, 그 다면적 의미를 탐구해낸 일련의 신간 도서에 주목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덕일의 《조선 최대 갑부 역관》(김영사)이었다.

3월 25일자 <동아일보>는 이 책을 두고 “한국사의 논쟁적인 주제를 들쭉서 역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며 새로운 역사 해석의 선봉에서 온 저자. 객관적 사료에 근거하되 끊임없이 행간의 의미를 들추어 온 그가 이번엔 역관의 역사적 지위를 복원하고자 나섰다”고 저자의 남다른 공을 인정했다.

같은 날짜 <서울신문>도 저자의 말을 빌려 “역관은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중인이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남아 있는 사료 또한 충분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그 위상과 역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책의 의미를 전했다. 신문은 특히 “김영사가 ‘새로운 감각의 역사서 시리즈’를 표방하며 내놓은 ‘표정있는 역사’ 시리즈의 첫 권”임을 강조하며, “일방적인 ‘역관 예찬론’의 혐의가 없진 않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역관 집단의 다양한 역할과 의의를 입체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같은 시기에 주목받은 또다른 책은 제리 멀러의 《자본주의의 매혹》(휴먼앤북스)였다. 3월 25일자 <조선일보>에서 김광수 성균관대 교수(경제사상사)는 “이 책은 자본주의와 시장이 사람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의 소재로 한 지성사(知性史)의 흐름을 다루고 있다”고 일별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를 변모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거인(巨人) 사상가들의 통찰

을 담아 놓은 대중서”로 파악했다. 그는 또 “이 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의 대안을 찾고 있는 우파 및 좌파 지식인들이 일독해야 하는 저서일 뿐만 아니라, 고전 읽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도 실로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권했다. 한편으로 “전문지식을 알기 쉽게 풀어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저자의 시도가 탁월한 듯”하다면서 “단지 우리 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고전 인용문에 대한 일부 오역이 눈에 띄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을 곁들이기도 했다.

박범신의 《비우니 향기롭다》(랜덤하우스 중앙) 역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끈 책 가운데 하나다. 3월 21일자 <한국경제신문>은 ‘영원한 청년 작가’로 불리며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던 박범신(60) 씨는 1993년 돌연 절필을 선언하고 문학과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한 자기성찰에 들어갔다”면서 “이후 작가는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등 히말라야의 험난한 봉우리를 여섯 차례나 다녀왔으며 최근엔 5,895m의 우후르 피크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고 출간 후 일담을 전하기도 했다. 신문은 “지난해 봄 히말라야를 여행하면서 쓴 편지 형식의 사색적 산문을 엮은 것”이라면서 “저자는 ‘우리는 왜 일상을 멈추고 산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 역설한다”고 친밀감을 표했다.

<세계일보> 역시 3월 18일자에서 박범신의 서문을 인용하며, 서지적 의미를 평가했다. 신문은 작가의 말을 빌려 “혁명이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습관의 축적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느끼는 일상 속의 나를 통째로 뒤집어 변화시키는 일”임을 적시하면서도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나를 변화시키는 일 또한 쉽지 않으며, 고소중 때문에 불면의 밤을 꿈꿨대며 지새고, 외로움에 지쳐 그리운 이들을 떠올리며 눈물짓고, 히말라야 사

람들의 따스한 정에 감동하기도 하며 서서히 자신의 내부로 들어가 변화의 요체가 무엇인지 느끼기 시작한" 작가 내면의 체험에 밑줄을 긋기도 했다.

칼 쇼르스케의 《세기말 비엔나》(구운몽) 역시 거의 모든 일간지가 대서특필한 책이다. 4월 8일자 〈서울신문〉은 “19세기말 빈은 정치, 사회사상은 물론 회화, 음악, 문학, 건축 등 예술 전 분야에서 유례없는 창조적 열기를 뽐어낸 시기”였음을 상기하며, “이 책은 빈을 제국주의 도시에서 급진적인 현대 도시로 바꿔놓은 이들의 활동과 그 무대였던 빈의 변화상을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또 “빈의 여명은 ‘너무 오래 살아남은 구세대의 전유물’ 이던 도시의 공터 링슈트라세를 개발하는 계획과 함께 시작됐고, 자유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현대적 스타일의 공공건축물과 시원한 대로들이 링슈트라세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인문학을 위한 무대가 마련된” 세기말 비엔나의 문화적 풍광을 묘사하며 “책은 링슈트라세와 그 비판자, 그리고 도시적 모더니즘의 탄생 배경을 깊이 있게 다룬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20세기 문화의 원형은 이미 19세기말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싹트고 있었다”며 “이미 91세를 맞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성사학자인 저자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현대건축의 개념을 정립한 오토 바그너, 무조음악을 통해 현대음악의 새 장을 열어젖힌 아르놀트 쇤베르크,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와 표현주의 화가 오스카 코코슈카 등이 서로 길에서 마주치며 활동하고 있었던 100여년전 비엔나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책의 메시지를 추출했다.

〈동아일보〉 역시 “1961년 발간된 이 책은 한 문명의 장엄한 황혼과 경이로운 여명(黎明)에 대한 매혹적인 탐구”라며 “미국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로 있는 저자는 복잡적이고 풍부한 삶의 편린들을 세세하게 묘사함으로써 극히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는 한 도시의 온전한 모습을 그려 내고자 한다.”고 극찬했다. 신문은 특히 “저자는 격변의 시대에 고뇌하는 지식인과 부르주아의 욕망과 콤플렉스, 자신감의 과시와 결여, 성공과 실패의 우여곡절을 드라마틱하게 펼쳐 보이며 이렇게 결론짓는다”면서 ‘세기말비엔나가 없었다면 20세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는 대목을 결론에 갈음했다.

존 벡의 《게임세대 회사를 점령하다》(세종서적)에 대해 4월 8일자 〈경향신문〉은 “게임과 게임세대에 대한 문화보고서로서, 게임세대들이 각 분야 중간관리자급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시대이므로 그들의 장점을 찾아보자는 게임세대 용병술 개론이자 경영지침서쯤 된다”고 규정했다.

“2,500명 직장인에 대한 설문조사, 200여명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게임세대들이 생물학적으로 차세대의 주인일 뿐 아니라 능력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주목한 신문은 “책은 게임세대의 특징으로 ▲승리 지상주의(심지어 ‘이기면 그만’) ▲왕성할 추진력 ▲멀티태스킹 능력 탁월 ▲절저하게 능력에 따른 보상 요구를 꼽는다”고 요약했다.

〈문화일보〉 역시 4월 7일자에서 “이 책은 21세기의 주류로 등장한 게임세대에 대한 보고서이자 분석서이며, 게임세대가 중심이 된 ‘비즈니스 파워의 세대교체’라는 트렌드에 현미경을 들이댄다”고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문화일보〉는 또 “저자들은 게임세대에게 ‘게임’은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라고 말한다”고 책의 내용을 전하며 “직장인이 되어서 일하는 것도, 배우는 방식도 다르고, ‘게임’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승패를 끊임없이 창조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으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는 내용에 주목했다.

한국고문서학회가 지은 《의식주, 살아있는 조선의 풍경》(역사비평사)는 “의식주를 통해 조선시대의 삶을 복원해낸”(4월 14일자 〈한겨레〉) 책으로 평가받았다.

〈한겨레〉는 “한끼의 식사와 한벌의 옷에 신분이 드러나고, 시대상이 나타나며, 이를 고스란히 복원하기 위해 박지원의 〈양반전〉이나 〈춘향전〉의 묘사를 가져다쓰고, 양반들의 일기나 호적 등 고문서를 들춰보기도 한다”고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72년 간의 생활사를 기록한 어느 양반의 일기는 당시 주거생활과 가족 수, 집의 크기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된다. 고문서 외에 김홍도나 김득신 등의 풍속화도 좋은 매개체가 되어준다”고 독후감을 전했다. 신문은 또한 “소소한 일상에 주목하는 만큼, 재밌는 이야깃거리도 많다”며 “국가가 흰색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색깔 염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탓에 우리 민족이 ‘백의민족’이 됐다거나, 요즘 성인남자의 3배를 먹던 대식습관 때문에 조선인들이 외국에 ‘대식가’로 알려졌다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라고 본문을 인용했다. ■

〈출판저널〉 편집부